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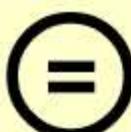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本語「させてもらう」에

關한

一考察

李
小
羅

2008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日本語「させてもらう」에
關於 一考察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李 小 羅

日本語「させてもらう」에 關於 一考察

A study of 「SASETEMORAU」 in Japanese

2008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専攻

李 小 羅

日本語「させてもらう」에 關於 一考察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専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7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専攻

李 小 羅

李小羅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查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金 仁 炫 印

審查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曺 榮 錫 印

審查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丁 意 祥 印

2007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ii
第1章 序論	1
1.1 研究目的	1
1.2 研究方法 및 내용	3
1.3 先行研究	4
第2章 させてもらう의 種類와 意味·用法	6
2.1 使役主 明示의 させてもらう의 意味·用法	6
2.1.1 直接的 行為의 使役+もらう	7
2.1.2 許可의 使役+もらう	9
2.2 不特定 使役主의 させてもらう의 意味·用法	11
2.2.1 相對에 대한 行為	12
2.2.2 意向伝達	14
2.2.3 待遇表現	19
2.2.4 기타	20
第3章 「させてもらう」와 複合的 態와의 相関関係	23
3.1 「させてくれる」와 「させてもらう」의 比較分析	23
3.2 「させられる」와 「させてもらう」의 比較分析	25
3.3 「もらう」와 「させてもらう」比較分析	28
第4章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実態 및 多層的 分析	30
4.1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実態	30
4.2 「させていただく」의 多層的 分析	32
4.2.1 「させていただく」의 構造 및 下位分類	33
4.2.2 新聞記事에 나타난 「させていただく」의 用法	36
4.2.3 新聞記事 속의 「させていただく」의 実例分析	39
4.3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範囲의 拡張 要因	42
4.4 「させていただく」의 誤用表現 「サ入れ言葉」	46
第5章 結論	48
参考文献	50

ABSTRACT

A Study of 「SASETEMORAU」 in Japanese

So-ra, Lee

Adviser : Prof. Eui-sang Jung,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asetemorau」 has the complex structure. this is composed of a causative verb 「saseru」, and benefit expression 「temorau」.

because, 「sasetemorau」 has the complex structures of 「causative + 'temorau」」, 「sasetemorau」 is classified two categories. the first has a subject of causative and directly shows the causative 「saseru」 character , the other does not have a subject of causative and directly show the causative 「saseru」 character. the latter also involves no-existing subject of causative.

In this thesis, I call the 「‘sasetemorau’ involving subject of causative」 「‘sasetemorau’ elucidated subject of causative」. and call 「sasetemorau」 dose not involving subject of causative」 「‘sasetemorau’ of unspecified subject of causative」. and I analyze different meanings between 「‘sasetemorau’ elucidated subject of causative」 and 「‘sasetemorau’ of unspecified subject of causative」 .

At first I divide 「‘sasetemorau’ elucidated subject of causative」 into the direct-doing 「saseru」 + 「temorau」 and the permissions 「saseru」 + 「temorau」 . also I show examples to understand usage of these two kinds to know the exact meanings of the 「‘sasetemorau’ of unspecified

subject of causative」。I investigate that the 「‘sasetemorau’ of unspecified subject of causative」 has several types of expressions like a deed, sending a massages, equivalent expressions, etc.

Also, to know the exact meanings and usages of the 「‘sasetemorau’ of unspecified subject of causative」.

I investigate the active (passive) voice related with 「sasetemorau」 through these investigations, I find these facts. the first in that generally 「sasetekureru」 and 「sasetemorau」 have opposite meanings, but sometimes these opposite meanings are changed. the second is that sometimes 「sasetekureru」 and 「sasetemorau」 are switched to each other. the third is the 「sasetekureru」 minus meanings are switched to the 「sasetemorau」 plus meanings by changing different verbs. the last is that comparing with 「temorau」, in the intended expressins. it is impossible for 「sasetekureru」 and 「sasetemorau」 to switch each other.

At the ends, I investigates 「saseteitadaku」 which is regarded as another meanings of 「sasetemorau」, and analyzes that the meanings of 「sasetemorau」 expand from original meanings(I type) to another meanings(III type) and by finding these meaning changing samples in the Newspaper articles. I can understand the expansion cause of meanings.

And also I investigates 「sairekotaba」 considered mis-used expression in 「saseteitadaku」.

第 1 章 序論

1.1 研究目的

「させてもらう」는 使役의 助動詞 「させる」에 受益表現 「もらう」가 연결된 구문으로 複合構造 형식을 띠고 있어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비교적 고난 이도의 문법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도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찾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 (1)会社に頼み、福岡から東京近郊の支店に転勤させてもらつた。(毎日新聞)
(2)そろそろ帰らせていただきます。

일반적으로 (1)의 使役主의 許可(許容)에 의한 動作主의 행동을 恩惠的으로 나타내거나, (2)의 謙讓的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させてもらう」는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¹⁾ 「させてもらう」의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させてもらう」의 유형을 使役主의 존재유무를 토대로 하여 使役主가 존재하는 「させてもらう」와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한 경우의 「させてもらう」로 분류하고, 각각의 下位類型의 意味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 (3) a. 私は戦地から帰った人にその体験をきかせてもらいました。

1) 佐藤里美 「使役構造の文」『ことばの科学1』むぎ書房 1996 p.32
에서는 この「させてもらう」の文が、《許可》表現としてかんにつかわれている。」라는 지적만을 했을 뿐이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させられる」のかたちをもつ使役のうけみ、「させてもらう」「させてやる」「させてくれる」のような使役やりもらいの文の文法的な意味、これらの文と使役構文との対立関係가成立する条件もしらべる必要がある」라고 덧붙였다.

(ビルマの豊琴)

- b. 戦地から帰った人は私にその体験をきかせてくれました。
- c. 私は戦地から帰った人にその体験をきかせられました。

「させてもらう」와 거의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갖는 「させてくれる」의 상호적 의미관계, 기본적으로 「させてもらう」와 상반된 의미를 갖는 「させられる」와의 비교를 통하여 「させてもらう」의構文的, 意味의인 특징을 분석하고,

- (4)a.あの家は、やはり同じ高校の生徒で、満州や朝鮮の実家に帰ろうとする連中が数人、泊らせてもらっていた。 (アカシア)
- b. あの家には、(中略) 数人、泊めてもらっていた。

させてもらう와 他動詞+てもらう를 比較分析하여させてもらう의 意味의인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또 하나의 큰 테마인 使役의 助動詞 「させる」에 受益表現 「てもらう」의 謙讓語 「ていただく」가 연결된 「させていただく」에 관해서 연구 분석한다.

최근 日本語 母語話者에게 있어서 「させていただく」의 過剩使用의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 「させていただく」의 용법상의 문제점은 많은 日本語母語話者が 느끼고 있을뿐더러 많은 日本語 學習者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TV나 신문기사 등에서도 「あのメールは本物でないと、党として認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라고 하여 「させていただく」를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정중하게 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このように認識しております」라고 말하는 편이 聽者에게 있어서 더 확실한 표현으로 다가올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過剩使用의 경향이 짙은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実例를 조사, 분석하여 「させていただく」를 다음의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사용実態를 명확히 파악한다.

I. 本来의 意味의 용법, 즉 상대방에게 许可를 받은 경우

예) 先生に資料をコピーさせていただいた。

II. 许容範囲의 용법, 즉 许可를 받았다고 想定할 수 있는 경우

예) この間は、お邪魔させていただいてすみませんでした。

III. 檢討를 필요로 하는 용법, 즉 许可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

예) 弊社は新製品を開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처럼 させていただく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させていただく의 본래의 의미 즉 I 타입에서 III타입으로 拡張 및 過剩 使用의 원인을 알아본다. 또한, 「もう一度、弾かせてもらいたいんですが」와 같이 五段動詞에 させていただく가 연결되어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소위「サ入れ言葉」에 대해서도 논하여 「させていただく」의 誤用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1.2 研究方法 및 内容

본고에서는 먼저 第1章의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使役主가 존재하는 せてもらう, 즉 「使役主 明示의 せてもらう」와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한 경우의 せてもらう, 즉 「不特定 使役主의 せてもらう」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의미와 용법을 실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第3章에서는 「させてもらう」와 複合的 態 즉, 「させてくれる」、「させられる」、「他動詞

+てもらう」 와의 相関関係를 분석하여 「させてもらう」 의 의미, 용법을 더욱 명확히 고찰하며, 第4章에서는 「させてもらう」 의 待遇表現, 「させていただく」 의 용법 및 사용실태를 신문기사를 통하여 살펴본 후, 「させていただく」 가 過剰 및 拡張 使用의 要因과 「させていただく」 의 誤用表現으로 일컬어지는 「サ入れ言葉」 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結論에서는 이상에서의 고찰의 종합으로 「させてもらう」 의 의미·용법, 「させてもらう」 와 複合的 態와의 相関関係, 「させていただく」 의 用法 및 使用実態와 誤用表現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한다.

1.3 先行研究

李(2005)는 「「させてもらう」 구문을 보이스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직접 대립문으로 「させてくれる」 구문을 想定할 수 있고, 사역성이 인정되는 「させてもらう」 구문은 피허용구문으로 기능하며 「させてくれる」 구문과 호환이 가능하게 되며, 사역성이 희박한 의지성의 「させてもらう」 구문은 「させてくれる」 구문과의 互換이 어려우며, 피허용구문적 성격보다는 「する」에 근접한 장중어적 구문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또한 피허용구문의 「させてもらう」 구문과 피역구문의 「させられる」 구문은 시점의 환원이라는 보이스적 특징을 보이며, 통어적으로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의미적으로 대립되며 相補的 관계에 있다」²⁾고 하였다.

宋(2006)은 「使役受益態 構文은, 使役動詞文에서 ヲ格、ニ格、ノ格의 動作主体가 使役受益態에서는 ガ格이 되는 「直接の使役受益態」 構文과, 「持ち主の使役受益態」 가 中心이 되는 構文으로, 使役受益態에서 벗어난 構文으로서, 使役主体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話者가 자신의 행동을 謙遜하게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여진다」³⁾고 하였다.

2) 李光秀「日本語「させてもらう」構文에 대하여」『日語日文学研究』第55輯 2005 p.352

3) 宋惠仙「使役受益態「させてもらった」構文の一考察」『日本学報』第66輯 2006 p.69

이와 같이 「させてもらう」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보이스적 대립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통어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의미적인 관점에 주목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고에서는 「させてもらう」의 의미·용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させていただく」에 있어서, 浦谷(1998)⁴⁾는 「させていただく」가 과잉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대공통어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비즈니스 관계 등에서 「させていただく」가 間接丁寧語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의식에 의해 「させていただぐ」가 過剰 使用되고 있다고 했다.

敬語의 指針(2007)⁵⁾에서는 「させていただぐ」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문제시 되고 있는 경어 또는 과잉경어의 범주 속에서 「させていただぐ」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의 용례를 들어 「させていただぐ」를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신문기사속의 「させていただぐ」를 중심으로 实例를 분석하여 「させていただぐ」를 고찰하고자 한다.

4) 浦谷宏/川口義一/坂本恵『敬語表現』大修館書店 1998 p.186

5) 文化庁『敬語の指針』2007 p.40

第 2 章 させてもらう文의 種類와 意味 · 用法

させてもらう는 構造적으로 「使役+てもらう」의 複合構造로 이루어져 있지만, 使役의 助動詞「させる」의 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使役主가 존재하는させてもらう와, 使役의 助動詞「させる」의 特징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즉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한 경우에도 불구하고させてもらう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使役主가 존재하는させてもらう를 「使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라 칭하고,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특정한 경우의させてもらう를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라 칭하여 그에 따른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⁶⁾

2.1 使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의 意味 · 用法

使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는 크게 直接的인 行爲의 使役+てもらう와 許可의 使役+てもらう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使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의 使役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使役文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용법을 갖는다.⁷⁾

(5) 母が私に薬を飲ませる。

6) 丁意祥「『させてもらう』文の意味・用法について」『日語日文学研究』第59輯 2006 p.1
에서는, 「話し手の謙譲的な表現、または聞き手の許可(許容)による話し手の受益を表す表現として用いられると言わることの多い「させてもらう」文も、表面構造の内在的な違いから大きく、単純に使役のさせるに受益のもらうが下接して、各々の表現の意味がそのまま生かされているグループと、「させてもらう」が一まとまりとして固有の意味を持つグループに分けられる」とある。
여기서는, 「『させてもらう』文을 이중구조적인『させてもらう』와『一まとまり로서의させてもらう』로 분류하고『させてもらう』文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7) 본고에서는 사역을 당하는 실제의 動作主를 有情物로 한정하고, 사역의 용법에 強制는 수의 표현으로서의させてもらう가 갖는 은혜적인 특징과 서로 상반되므로 제외한다.

(6) 先生が(帰りたがっている) 太郎を家に帰らせる。

使役文은 文의 主語에 해당하는 使役主와, 二格 또는 ヲ格의 動作主가 어떤 방식으로 事態에 関与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용법의 차이를 보인다. (5)는 主語에 해당하는 「母」(使役主)가 二格의 「私」(動作主)에게 「飲む」 행위를 「させる」 한 것으로 直接的인 行위의 의미를 갖으며, (6)은 主語에 해당하는 「先生」(使役主)가 ヲ格의 「太郎」(動作主)에게 「帰る」 행위를 「させる」 한 것으로 許可의 의미를 나타낸다.

使役主 明示의 させてもらう는 (5)에 나타난 使役의 용법, 즉 直接的인 行爲의 사역에 てもらう가 연결된 複合構造의 형식과, (6)에 나타난 使役의 용법, 즉 許可의 使役에 てもらう가 연결된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2.1.1 直接的인 行爲의 使役 + てもらう

直接的인 行爲의 使役에 「てもらう」 가 연결된 させてもらう는, 動作을 행하는 動作主의 시점에서 基本文⁸⁾의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事態를 恩惠의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타입의 させてもらう는 동작의 대상 및 상대방에 대한 直接的인 行爲를 나타내는 使役의 助動詞「させる」에 受益表現「てもらう」가 연결된 표현이다.

(7) 古沢先生、怒り心頭。取るものも取り敢えず駆け付けてきたというのに…

市原は、ゆかに林檎を、「あーん」なんかして、食べさせてもらっていた。/市原「(口を動かしたら傷に響いた) あ痛……」/ゆか「かわいちょ、よちよち……(チュッと傷にキス) /そこへ、古沢先生がつかつかッと寄ってき

8) 여기서 기본문이란 사역문의 元になる文의 의미이다.

- a. 母が私に薬を飲ませる → 사역문
- b. 私は薬を飲む → 기본문

たのだから、市原あわてた（白い手）

(8)元小学校教諭の大江ちさとさんは幼いころを過ごした新潟で、ねえやによく昔話をきかせてもらった（天声人語85）

(9)コーチの先生とは顔見知りであり、邪魔にならないように息子に泳ぎの稽古をさせてもらっているのである（プール）

(10)ところが、ある日のこと、男はどうしても町へ出かけなくてはならない用事ができた。「ああ、めんどうくさい、めんどうくさい。」と言いながら、おかみさんに着物をきせてもらい、ぞうりをはかせてもらった。（漫談）

(7)의 대응하는 使役文은 「ゆかは市原にリンゴを食べさせた」로서 食べる動作主는 「市原」, 食べさせる의 使役主는 「ゆか」에 해당된다. 「あーなんかして」에서 알 수 있듯이 动作主인 「市原」가 자신의 손으로 사과를 먹는 것 이 아니라, 市原는 입만 별리고 있는 상태이고 使役주인 「ゆか」가直接적인 행위에 의하여 市原의 입에 사과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7)은 使役주 「ゆか」가 「食べさせる」 한 行為에 의해, 动作主인 「市原」가 利益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에 대응하는 使役文은 「ねえやが大江ちさとさんに昔話を聞かせた」로, 使役주인 「ねえや」가 动作주인 「大江ちさとさん」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준다는 直接적인 行為의 의미이다. 使役주인 「ねえや」의 直接적인 行為 즉 「きかせる」 行為에 의해 动作주인 「大江ちさとさん」이 利益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다.

(9)에 대응하는 使役文은 「コーチが息子に泳ぎの稽古をさせる」로, 使役주는 「コーチ」이고 动作주는 「息子」에 해당된다. 使役주 「コーチ」가 直接적인 行為에 의해 息子에게 「泳ぎの稽古」를 「させる」 함으로써 动作주 「息子」가 利益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다.

(10)에 대응하는 使役文은 「おかみさんが男にぞうりをはかせた」로 使役주인 「おかみさん」이 动作주인 「男」에게 ぞう리를 「はかせる」함으로써 动作주 「男」가 利益을 얻고 있다. 「おかみさんに着物をきせてもらい」에서도 알 수 있듯이 动作주 「男」는 ぞう리를 직접 신는 것이 아니라 おかみさんの 直接적인 行為의 결과 动作주 「男」가 오히려 ぞう리를 신는 行為를 플러스적으로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2 許可의 使役 + てもらう

许可의 使役에 受益表現 「てもらう」가 연결된 させてもらう는 させてもらう의 典型적인 용법으로, 使役주의 许可를 얻어 动作주가 基本文의 동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恩惠의으로 나타내는 意味적인 특징을 보인다.

(11)親類の家に泊って、余所の人に湯を使わせてもらつても、自分だけが裸にせられて、使わせてくれる人は着物を着ている（ヰタ・セクスアリス）

(12)私たちは時に十円も持たずに」<R>へ行き、マダムに頼んで店の名前を書いたプラカードを持たせてもらった。（風に吹かれて）

(13)父親はガンに関する本を読みあさった。漢方薬や他の方法で、助けられないかと探しても見た。医者は手術するしかないという。会社に頼み、福岡から東京近郊の支店に転勤させてもらった。（毎日新聞）

(14)7号「あたしは、被害者のことが言いたいですね。はっきり言ってあいつはクズですよ、人間の/ 8号「そこまで言います？」/ 7号「当たり前ですよ。三十過ぎの男が何もしないで女に食わせてもらうってのは何事ですか。そうでしょう。そんな野郎は遅かれ早かれトラックに轢かれて死ぬんだ/12号「それはちょっと言い過ぎじゃないですか」

(ニン)

(15) 「ところが、ある日。急に遠藤さんの方から、舟作りの仕事場に見に来てもいいと言ってくれました。その時には、舟はもうかなり形はできはじめました。こうして私たちは、遠藤さんの川舟作りの技を撮影させてもらうことができたのです」

(11)에 대응하는 使役文은 「余所の人が自分(話者)に湯を使わせる』로 使役主는 「余所の人」, 动作主는 「自分(話者)」에 해당한다. 이 타입의 「させる」는 허가의 의미로, 「自分(話者)」가 「余所の人」의 허가를 얻어 「湯」를 「使う」行为를 한다는 의미이다.

(12)에 대응하는 使役文은 「マダムが私たちにプラカードを持たせた」로 使役主는 「マダム」、動作主는 「私たち」에 해당한다. 「マダムに頼んで」에 서도 알 수 있듯이 动作主 「私」가 使役主 「マダム」에게 부탁하여, 즉 마ダム의 허가를 얻어 プラカード를 「持つ」行为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3)에서 또렷이 动作主가 등장하지 않지만 想定하여 볼 경우 대응하는 使役文은 「会社が私 (話者) を転勤させた」로 使役主는 「会社」, 动作主는 「話者」이다. 이 文에서 話者は 「会社に頼み」에서 알 수 있듯이 会社에 부탁하여 즉 会社의 허가를 얻고 「転勤する」行为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4)의 대응하는 使役文을 살펴보면 「女が男を食わせる」로, 动作主 「男」는 使役主 「女」의 허가를 얻어 「食べる」行为를 恩惠의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 下位의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 용법의 빙정거림 또는 비난의 의미·용법과도 어느 정도 連関性을 엿볼 수 있

다.

(15)에 대응하는 使役文은 「遠藤さんが私たちに撮影させた」로 動作主 「私たち」는 使役主 「遠藤さん」에게 許可를 받아 「撮影する」行為를 할 수 있었다는 恩恵의 표현이다. 이는 下位의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 용법의 감사의 표현과도 関連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2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의 意味·用法

(16) 戰時中、特攻隊の教官としてたくさんの若者を死なせた。

먼저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에서의 使役의 의미를 살펴보면, (16)의 「死なせた」는 使役주가 直接으로 事態에 関与하여 若者를 「死なせる」 즉, 죽게 한 것이 아니라, 使役주는 전쟁으로 인해 間接적인 影響을 받은 것 뿐이다. 이 타입의 使役은 위의 典型적인 使役의 의미와는 달리 使役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不特定한, 使役의 周辺적인 용법이라 할 수 있다.

(17) 時間が時間だし、手みじかに言わせてもらいます。 (飛ぶ男)

不特定 使役주의させてもらう는 使役의 助動詞「させる」에 受益表現「てもらう」가 연결된複合構造의 형식이 아닌させてもらう가 보이스의 一種으로 하나의 文法範疇를 이루고 있다. 不特定 使役주의させてもらう는 (17)과 같이 使役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하기 때문에 使役주는 基本文의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事態에 非關与의이며, 오로지 話者 즉, 動作主에 의한 동

작을 표현하는 文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不特定 使役主의 「させてもらう」의 세부유형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2.1 相對에 대한 行為

이 타입의 「させてもらう」는 상대방에 대한 要求나, 命令, 銀誘 등 상대방에 대한 行為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① 要求

させてもらう가 要求의 의미로 쓰일 경우, 「させ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させてもらえないか」와 같은 文末의 모달리티 표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要求에 대한 決定權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 (18) 時間が時間だし、手みじかに言わせてもらいます。僕らじつを言うと腹違いの兄弟なんだ。だから、先生のこと、兄さんとよばせてもらっていいでしょう? (飛ぶ男)
- (19) 無愛想な声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かったが、その底の人の良さを感じさせる調子で男は言った。待たせてもらっていいかと訊ねると、黙って頷いた。 (一瞬の夏)
- (20) 「いや、わたしも痛んだりして、このうえ迷惑をかけでもしたらと思ってるんですが、二階の物置きに昔の祈禱簿がありますね。あれを使わせてもらえないませんか」 (ツキヤマ)
- (21) 私はそのほうの話は湯村にまかせて、工場主に「片桐正俊さんと一番親しかったひとに会わせてもらえないませんか」といった。 (イオウジマ)
- (22) 本人に会わせ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 (放浪記)

② 命令에 가까운 依頼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要求하는 표현으로 上位의要求의 용법과 비슷하지만, 상대방에게決定權은 없이 話者の 상대방에 대한命令을 나타내는 다소 강한 依頼의 표현이다.

- (23) 「わかってるよ。さて、聞かせてもらおうか」（女社長～）
- (24) オランダの提案による日本の連盟への加入を承認する。ついては、法令をもって貴国における一手輸入業者を定め、年間の所要量を知らせてもらいたい。（人民は～）
- (25) 「そうだ。大事なことを忘れていたな。それを聞かせてもらおうか」（冬の旅）
- (26) 「てめえ。なんで俺にだけ焦げ飯を盛ったのだ。とっくりとわけをきかせてもらおうじゃないか」（冬の旅）
- (27) 由美子と同棲を始めて間もなく、彼女が妊娠した。実は直貴は悩んだが、由美子はそんな気配をまるで見せなかった。何しろ妊娠を告げるときの台詞が、「おめでとう、今日からパパと呼ばせてもらうで」だったのだ。（手紙）

③ 励誘(충고 또는 조언)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 「させてもらえ」「させてもらひなさい」등의命令이나, 「當為判断」을 나타내는 「させてもらうべきだ」, 仮定·勧誘를 나타내는 「させてもらえれば」등의文末에 모달리티 표현이 동반하여 話者が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勧誘하거나 조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위의要求,命令의させてもらう는 話者が恩惠를 입는다면 충고 또는 조언의させてもら

う는 상대방이 恩恵를 입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8) せめていつか前には休みを取るようにしろよ。明日から休ませてもらえよ。 (一瞬の夏)
- (29) それがなぜこうさわがれているのか、不審でならなかつた。この件は関係官庁のすべての了解のもとに、慎重に慎重をかさねて行ったことだ。家宅捜索や呼び出しなどしなくとも、各官庁に問い合わせてもらえば容易に氷解するはずである。(人民は)
- (30) 「モデル・ティーチングをぜひやらせてもらうべきですよ。ねえ、柴本くん。後はわれわれの力を相手に見てもらうべきだと思うのです。これはちょうどいいチャンスじゃないですか。」(アメリカン)

2.2.2 意向伝達

의향전달의 させてもらう는 상대방에게 대한 要求, 命令, 励誘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 단지 話者の 意向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유형이다. 주로 話者の 意思 또는 希望을 나타내는 文末의 모달리티 표현이 오며, 완곡한 意思表現, 강한 意思表現, 決定事項의 일방적인 통보, 허가를 가장한 決定事項의 전달, 상대방의 意思에 대한 강한 반발등을 나타내는 하위유형이 존재한다.

① 완곡한 意思表現

이 타입의 させてもらう는 주로 「させてもらいたい」「させてもらおう」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話者の 意思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1) 自分はイギリスの将校にたのんだ。一どうかわれわれのうちの一人をその村にやって、説得をさせてもらいたい。一人でも無駄死をするものがないように、できるだけのことをしてみたい。こういっていろいろにたのんだが、それではやってみろ、と許可を得た。 (ビルマ)
- (32) 時に野蛮な頽廃に惹かれ、恋人ともども紅梅か夾竹桃の花となって、花粉を運ぶ胡蝶に結婚させてもらいたいと願い、時にまた「あなた」へのよびかけとなり、谷の奥に山の音を聞いて恐怖におそわれる… (雪国)
- (33) とっとちゃんは、その、ねずみ色みたいな皮を、自分も試しに噛ませてもらいたい、と思った。 (トット)

② 강한 意思表現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 위의 완곡한 意思表現의させてもらう보다 더욱 강한 話者の意志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타입은必ず,ぜひ,はっきり등의 부사와させてもらいたい의 표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 (34) 国会の会議は、残りわずか10日間である。常識に言えば、今国会での成立は困難を見るべきだろうが、公明党の矢野書記長は「各党の話し合さえまとまれば、一週間でできる」と発言したことがある。与野党は精力的に話し合いを煮つめ、必ずこの国会で決着させてもらいたい。
(朝日新聞)
- (35) だが、その公開討論も立ち消えとなり、このまま投票日を迎てしまいそうだ。このままでは有権者は戸惑うし、何よりも政治不信を一層深めることになる。中曾根首相と自民党に、少なくとも次の点は、はっきりさせてもらいたい。
(朝日新聞)
- (36) 問題は売却益の具体的使途だ。政界対策のためNTTの幹部らが據出した

というボランティア基金の使途解明と並んで、ぜひはっきりさせてもらう点である。(朝日新聞)

- (37) よかろう……どっちみち、しまつがひとつだというなら、試せるだけのことは、試させてもらうとしようじゃないか！(砂の女)
- (38) 「正々等々、というのが君たち夫婦のキーワードのようだからあえていわせてもらうよ。その、いついかなる時も正々堂々としてるというには、君たちにとって本当に苦悩の選択だろうか。私にはしようは思えないな。わかりやすく、非常に選びやすい道を進んでるとしか思えないが」(手紙)
- (39) 私はあらためた口調で言った。自分はこれまでエディさんに頼み事をしたことがない。その頼み事を一つだけさせてもらいたい。なんという押しつけがましい頼み方だ、嫌悪感を覚えたが、その思いをねじ伏せ、さらに言葉を継いだ。どうか私と一緒に韓国へ行っていただきたい、お願ひします。私が言うと、エディさんは戸惑った表情になった。(一瞬の夏)

③ 決定事項의 一方的인 통보

이 타입의 させてもらう는 話者의 意志表現의 一種이긴 하지만, 이미 話者 의 마음속으로 事態를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사태를 不特定多數를 상대로 전달, 통보하는 것이다. 이 타입의 させてもらう는 断定을 나타내는 모달리티(る形 또는 た形)와 決定事項을 나타내는 ことに対する등의 표현과 동반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 (40) で、高齢者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中では、このままもう立ち行かないということで、すったもんだの挙げ句、お金を取らせていただくことにした。所得に応じてですので、無料の人、2500円の人、5000円の人。一部高

額所得者の方は1万5000円ですけど、ほとんどの方が年に2500円か5000円です。年間で、（朝日新聞）

(41) 「いきなりですが、私のこのコラムは今回を最後にさせてもらいました」と画家の宮迫千鶴さんが先週末、東京新聞に書いていた。週1回のコラムをやめるというのだ。いつも人間味あふれる文がすばらしかったのに。

(天声人語)

(42) 申し訳ありませんが、当サイトは暫く停止させてもらうことにしました。理由はいくつありますが、とりあえず現在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ボイスドラマそして現在企画しているボイスドラマはこのまま実行させてもらいます。

④ 허가를 가장한 결정사항의 전달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 위의 결정사항의一方의인 통보의させてもらう와 같이 話者が 이미 결정한 事態를 不特定多数가 아닌, 특정의 聽者에게 허가를 구한 듯한 인상을 주어 話者の決定사항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43) 「君がよんだ方が意味がある」緒方はそういって再び立ち上がった。「ほかの手紙も読んでみるといい。私はちょっと外させてもらう」緒方が出ていった後、直貴は最初の手紙を開いた。（手紙）

(44) 中は暖かそうだから、入させてもらうわ。（ハウルの動く城）

(45) でも、船橋じゃあ、俺が壊されるのをおっかながって、なかなか出してくれなかつたんだ。いつかそのうちといってね。そりゃ、日本でやってれば儲かってたからね。でもさ、そんなことをしてるうちに、僕のやる気が消えちゃつたのさ。今度はそんなことはないと思うけど、せっかく柳とやりたいと思ってるのに、またいつかそのうちになつたらやりきれないじや

ない。だから、俺、今のうちにやめさせてもらおうかと思ったんだ。（一瞬の夏）

⑤ 상대방의 意思나 행동에 대한 반발의 발언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상대방의意志如何에 상관없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만다는 話者の 강한意志, 主張을 나타낸다.

(46)「しかし、全く！警察は何をしてるんだ！われわれの税金で食わせてもらっておきながら……」（女社長）

(47)私の指摘は、米英と米日の二つの関係を歴史あるいは、脈絡がまったく違うので、米英をモデルにして考えるのは無益だということです。問題がぼやけてしまうと思います。それから、小池さん、言わせていただくと、第二次世界大戦の悲劇、日本の都市への原爆投下はアメリカに責任がかかる惨劇ですが、その脈絡を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朝日新聞）

⑥ 상대방에 대한 恩惠 授与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 話者が 상대방에게 利益이 되는, 恩惠로운 行為를 베푼다는 의미로 쓰여、「～してあげてもいいぞ」 같은 뉘앙스가 풍겨 다소 거만한 話者の意思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48)「もう妙なことは起こさん。何か私で役に立つことがあったら言ってくれ。できるだけのことはさせてもらうよ」（女社長）

(49)「承知しました。行助にそのように伝えてください。なお、弁護士さんの費用は、私から支払わせてもらいます」（冬の旅）

(50) 店のお兄さんは商売上手で、手練手管でふたりに買わせようとしていた。
「ふたつ一緒に買うってくれたら二割引き、三つやったら三割引きなんやけ
ど、お姉ちゃんたちかわいいから半額でご奉仕させてもらいまっせ」
(ラブレター)

2.2.3 待遇表現

待遇表現으로서させてもらう는 주로させていただくれ로쓰이는 경우가 많다.させていただくれ가待遇表現⁹⁾으로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¹⁰⁾

(51)今日は重大なことを打ち明けたく、筆をと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先日、弟から手紙がきました。受刑者にとって肉親からの便りほど心和らぐものはありません。胸を彈ませて読み始めました。(手紙)

(52)あなたにお会いしたかったけど、あなたに会うまでの勇気がでませんでした。手紙だけの間柄でした。手紙だけで失礼させていただきます。(ラブレター)

(53)京都の菓子屋には、おもてなしや贈答品のための上菓子を作る「お菓子屋はん」、饅頭(まんじゅう)や餅菓子の「おまん屋はん」、餅や赤飯を売る「お餅屋はん」の3種類があります。お客様からの注文通りに「つくらせ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お菓子屋はん」の基本的精神です。

(朝日新聞)

(54)「低いところにある花は、目線をその高さまで落として撮らないとダメなんです」「『花を撮る』のではなく『撮らせていただく』気持ちで接する」福田さんは、こんな風に撮影で心かけていることを説明した。

9) 辻村敏樹(1968)『敬語の史的研究』東京堂出版 p.3
에서는待遇表現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かくて、待遇表現とは話し手、聞き手、素材の三者の間（素材間を含む）の尊卑・優等・利害・親疎などの関係に応じて変化する言語形式であると言えましょう。」

10)させていただくれ문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朝日新聞)

2.2.4 기타

①서문(序文)

이 타입은 「させてもらえば」 「させてもらうと」 「させてもらうなら」 와 같은 조건절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경우의序文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55)ちょっと弁解させてもらうと、これには僕の両親の頑迷な思い込みによるところがあった。僕は幼いころに、左ぎっちょを無理矢理修正させられた過去があった。(いま、会いにゆきます)

(56)僕があくまで個人的な意見を言わせてもらえば、ロール・キャベツを作る時は「かつてプリンスと呼ばれたアーティスト」がいいような気がする。(村上ラヂオ)

(57)私は、秀美を素敵な男性に育てたい。大人の女の立場から言わせてもらうと、社会から外れないように外れないように怯えて、自分自身の価値観をそこにゆだねてる男って、ちっとも魅力ないわ」(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58)幾つか素朴な疑問を言わせていただくと、松谷先生のモデルは、もちろん、深いところは存じませんけれども、当然、モデルというのは幾つかの前提条件があるわけですね。先程のモデルの結果からいうと、それほど心配するな、安心せよと、そういうメッセージのような感じがいたしました。(朝日新聞)

② 빙정거림 또는 비난

드물기는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させてもらう」 빙정거림 또는 비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59) 「まあ、しばらく、がまんしてもらうんだな。モッコの連中が戻ってくるまでの辛抱だ。ぼくがさんざん舐めさせられた、でたらめと比べりや、文句を言えた義理じやあるまいさ。それに、宿泊料もちゃん払わせていただきますしね……もっとも、こっちで勝手に計算させてもらった、実費だけどね……かまわないでしょう? ……かまうもんか! …本来なら、只が同然のところなんだが、そんなことで帳消しにされちゃかなわないから、むりやり置いていってやるんだ。」(砂の女)

(60) 率直に僕の意見を言わせてもらえばな、こんな家は、ぶっつぶれてしまった方がいっそせいせいすると思うんだ (砂の女)

③ 감사

이 타입의させてもらう는待遇表現의 일종이긴 하지만,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나타낸다.

(61) 良明、作業場入口の“正木織物”的看板をはずし水洗いを始める。君子、作業場から顔を出す。/ 君子「何しとるの」/ 良明「この看板、今のところ必要ないだろ。また使わせてもらう時まで、しまっとうと思って」(ウチュウ)

(62) 車内で席を譲る話や「シルバーシート」について投書のことなどを記した。読者から、体験談を含め、様々な感想が寄せられた。中学生たちの感想文も読ませてもらった。席の譲り合い。公共の場での気遣い。いろいろな考え方がある。(天声人語)

④ 상대방에 대한 원망, 부정적인 바람

위의 빈정거림 또는 비난에서처럼 그 예가 드물기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부정적인 바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63) 「ひどい目にあわせてほしいの。あたしの知っている人に、ひどい目にあわせてもらいたいの。そして、そのことをあたしに教えて」（砂の上）

第 3 章 させてもらう와 複合的 態표현과의 相関關係

3장에서는 させてもらう와 거의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갖는させてくれる의 보이스적 相関關係, 기본적으로 させてもらう와 상반된 의미를 갖는 させられる와의 비교를 통하여 させてもらう의 構文的, 意味의 특징을 분석하고, させてもらう와 近似한 의미를 갖는 他動詞+てもらう와의 비교를 통해 させてもらう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させてくれる와 させてもらう의 比較分析

させてくれる와 させてもらう는 格의 変換에 의해 視点의 転換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述語의 形태가 변화하는 보이스적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4) 太郎が先生に帰らせてもらった。

(64') 先生が太郎を帰らせてくれた。

(64) 의 させてもらう文에서 ガ格에 해당하는 使役主 가 (64')의 させてくれる文에서는 二格으로(先生が→先生に), (64)의 させてもらう文에서 ヲ格에 해당하는 動作主가 (64')의 させてくれる文에서는 ガ格로(太郎を→太郎が)로 変換되고, 述語가 形태변화 함으로써 (帰らせてくれた→帰らせてもらった) 두 문은 보이스적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고 그 知的 意味, 客觀的 意味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上位의 使役主 明示의 「させてもらう」로 使

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는させてくれる와 보이스적 相関関係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대응관계를 보이는 使役主 明示의 「させてもらう」와 「させてくれる」의 实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65)両親の遺骨をまつた手作りの祭壇を吉井さん宅に置かせてもらった。

よくほほえむ両親の写真の前に、「両親の分も、二人で頑張って生きていく」と将人さんは誓った。(毎日新聞)

(65')吉田さんが両親の遺骨をまつた手作りの祭壇を置かせてくれた。

(66)私は素直に、おろしたリンゴをスプーンから食べさせてもらい、野菜スープをのみ、幼児用のウェファースと衛生ボーロを食べた。(あの夕日)

(66') (だれかが) 私に素直におろしたリンゴを食べさせてくれ、野菜スープをのみ、幼児用のウェファースと衛生ボーロを食べた。

그럼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에 대해서 살펴보자.

(67)最後に私に一言だけ言わせてもらえませんか。

(67')最後に私に一言だけ言わせてくれませんか。

(67)의させてもらう文은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한 경우로 오로지 動作主(話者)에 의한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67)의させてもらう文은 (67')의させてくれる文과 格의 変換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표면상의 의미는 같지만 보이스적 相関関係를 가질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67)과 (67')은 許可를 요구하는 표현이므로, 「させてくれる」가 「させてもらう」와直

接의인 대응을 이루지 못하고 可能形態인 「させてもらえる」의 형태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 두 문장은 知的 意味, 즉 客觀的 意味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67')의 「させてくれる」에 비해, 「させてもらう」의 형태가 쓰이고 있는 (67)의 경우가 좀 더 상대방에 대한 격식이나 배려의 의미를 内包하고 있어, 두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意味의 차이를 보이는 不特定 使役主의 「させてもらう」와 「させてくれる」의 實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68) 本章は、私がキャッチ結合組織の実験をしながら、日頃考えていることを書いた。サイズの話からは、ちょっとはずれた点もあったろうが、そもそもの発端は、ウニやナマコなどというサイズの大きい生き物が、なぜ海辺にごろごろいるんだ？という疑問から、考えの糸をたどりはじめたものである。サイズや支持系のことを考えにいれると、動物のデザインが見えてくるという実例として、少し長めに書かせてもらった。（ゾウ）

(68') サイズや支持系のことを考えにいれると、動物のデザインが見えてくるという実例として、少し長めに書かせてくれた。

(69) 当時の新興成金の家の書生となって、毎日のランプ磨きがリュウマチの身につらかったとか、そんな話を私は子供のころによく聞かされた。だけどその成金には目をかけられていて、ある時期は大学にも行かせてもらつていたらしい。（チチ）

(69') ある時期は大学にも行かせていたらしい。

3.2させられる와させてもらう의 比較分析

(70) 「中学の音楽の時間に、歌のテストとかあっただろう。『若い力』とか

『贈る言葉』とか、うざったい歌をいっぱい歌わされたじゃない。そういうときの広瀬の声って、ちっちゃくて全然聞こえなかっただよな。おれなんか前の方の席に坐ってたけど、何うたってんのかわかんなかったもん」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일반적으로 (70)과 같은 使役受動表現 「させられる」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強要(強制)를 받아 동작을 행하는, 話者에게 있어서는迷惑한 느낌을 받게 하는 표현이며, 이에 반해 「させてもらう」는 상대방에게 許可를 받아 동작을 행하여 話者에게 있어서 恩惠의인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나타내는させられる와 플러스적인 의미를 나타내는させてもらう는 반드시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두 표현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적으로 類似性을 갖으며, 서로置換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以下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미상 상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させられる」와 「させてもらう」 표현이 어떠한 경우에 類似性을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述語의 형태가 두 표현 모두 複合構造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 즉 「使役+受動」의 複合構造 형식인させられる와 「使役+てもらう」의 複合構造 형식인させてもらう를 살펴보자.

(71) 加藤は濡れたものを脱がされ、囲炉裏端に座らせられた。熱い粥が与えられた。(孤高の人)

(72) 歌いながら、シヅ子に衣装をぬがせられ、シヅ子の胸に自分の額を押しつけて眠ってしまう、それが自分の日常でした。

(71)(72)의 「座らせられた」와 「ぬがせられ」는 각각 「座らせてもらっ

た」 「ぬがせてもらい」로 置換할 수 있다. 다만 「させてもらう」를 사용하면, 「もらう」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 즉 恩惠의인 특징 때문에 「させられる」를 사용할 때보다 약간 플러스적인 뉘앙스를 갖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させられる」가 「自發」이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させてもらう」로 置換이 가능하고, 이 경우 「させられる」와 「させてもらう」의 표면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73) よその国の料理なのによくまあこんなに上手に作るよなとよく感心させられる。 (村上ラヂオ)
- (74) しかしこのあいだアンドルー・チェイキンが書いた『人類、月に立つ』(NHK出版)という、アポロ計画当時の宇宙飛行士たちについてのノンフィクションを読んでいて、僕のこれらの体験なんてまだまだ生やさしいものだったんだと思い知らされた。 (村上ラヂオ)
- (75) ハイ・ムーンこと京都大学高月紘教授が、月刊『廃棄物』に連載中の自作1コマ漫画を一冊に收めました。ごみ世相、ごみ時事問題などを鋭い視点で捉え、笑わせられ、楽しませられながら、ごみ問題の深奥を考えさせられる漫画です。

(73)의 「감心させられる」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감心させもらう」로 (74)의 「thought about it」은 「thought about it」, (75)의 「웃어지게 만들었을 때」 「웃어지게 만들었을 때」는 각각 「웃어지게 만들었을 때」 「웃어지게 만들었을 때」로 置換할 수 있다. 麹(2001)에서는 「「喜ぶ、樂しむ」와 같이 기쁨을 나타내는 感情動詞는 「させられる」와 병행할 수 없다. 즉 플러스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73)(74)(7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 즉 心的 作用이나 感情을 나타내는 基本動詞의 「させられる」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지만 「させ

「もらう」로 置換할 수 있고 그 표면적 의미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3 させてもらう와 てもらう의 比較分析

다음으로 させてもらう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させてもらう와 「他動詞+もらう」를 살펴보기로 하겠다.¹¹⁾

(76) あの家には、やはり同じ高校の生徒で、満州や朝鮮の実家に帰ろうとする連中が数人、泊らせてもらっていた。 (アカシア)

(76') あの家には、やはり同じ高校の生徒で、満州や朝鮮の実家に帰ろうとする連中が数人、泊めてもらっていた。

(77) いったい何時になつたら、上にあがらせてもらえるんです？ (砂の女)

(77') いったい何時になつたら、上にあげてもらえるんです？

(76)(77)의 させてもらう文은 (76')(77')의 「他動詞+もらう」文으로 置換하여도 그 표면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78) 訓練終了後、子供たちは消防自動車に乗せてもらったり、消防服を { a. 着せて / b. 着させて } もらい大歓びでした。

(広報やまがた2000年2月号)

(79) いろいろ面白い研究を { a. 見せて / b. 見させて } 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ボッコ)

위의 (78)(79)의 文의 경우는 話者の 의지가 事態의 발생에 非関与的이다.

11) 본고에서는 「着る：着せる」와 같이 再歸的 他動詞와 그에 대응하는 他者에의 작용을 나타내는 他動詞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경우 (78a)(79a) 의 「他動詞+てもらう」 文과 (78b)(79b)의 「自動詞+させてもらう」 두 표현 모두 사용가능하다. 이와 같이 話者의 의지가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 「他動詞+てもらう」 와 「自動詞+させてもらう」 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짧은 형태인 「他動詞+てもらう」 가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話者의 의지가 사태의 발생에 関与의인 경우를 살펴보자.

(80) (自分で試着する) ちょっとこの服 {a.?着せて/b.着させて} もらっていいですか。

(81) 誰もいませんか？勝手に{a. ?入れて/b.入らせて}もらいますよ。

(80a)(81a)와 같이 화자의 의지가 존중되는 문맥에서는 「他動詞+てもらう」 文이 올 수 없고, 「自動詞+させてもらう」 文이 사용된다. 타동사문은 기본적으로 斜格¹²⁾參與者의 의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어의 의지에 의한 행위를 나타내지만 사역문은 斜格參與者의 의향이 존중된다. 이 차이가 「他動詞+てもらう」 文과 「自動詞+させてもらう」 의 의미의 차이를 느끼게 하여, 화자의 의지가 사태의 발생에 관여적인 文에서는 「他動詞+てもらう」 文을 사용할 수 없는 동사도 있다.¹³⁾

이처럼 自動詞와 他動詞의 쌍을 이루는 동사에 있어서, 「他動詞+てもらう」 와 「自動詞+させてもらう」 는 일부에 他動詞와 「自動詞+させる」 의 의미차이, 즉 自動詞動作의 動作主의 意志介入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로 置換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

12) 山田敏弘『日本語ペネ法ティプー「てやる」「てくれる」「もらう」の文法-』明治書院 2006 p.136
여기서 斜格은 二格 혹은 ヲ格를 의미한다.

13) 实例에서는 「他動詞+てもらう」 가 쓰이는 경우도 눈에 띈다,
(例) 暑いわ。ちょっと(家に) 入れていただくわね。車のエンジンかけっぱなしだけど。 (モッキン)

다. 그로 인해 의미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짧은 「他動詞
+てもらう」가 많이 쓰이는 것이다.

第4章 させていただくの 使用実態 및 多層的 分析

4.1 「させていただく」の 使用実態

「Xは(が) Yに～を～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Y의 허가를 얻어서 X가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경어의 한 형식인 謙讓語로서 Y를 높이고 X를 상대적으로 낮춘다고 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X가 Y의 허가를 얻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듯한 「乗車券、特急券を拝見させていただきます（新幹線の車掌）」와 같은 장면에서도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다. 이는 「ご案内させていただきます車掌は〇〇でございます」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행위를 낮추어서 논술하는 謙讓語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Xは(が) Yに～を～させていただく」의 용법에 관해서는 菊地(1994) 등이 상세히 논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일반적인 예로는

(82) 私は森田さんにカメラを使わせていただきました。

를 들 수 있다. 이 문장은 예를 들자면, 森田さん이 나에게 카메라를 빌려 주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이 경우의 使役은 「～することを許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이 표현에 관해서 菊地(1994)는 「형태 그 자체에 <Y를 높이고 X를 상대적으로 낮춘다>라는 기능이 있는 것에 부가하여 <상대방 측의 허가(恩惠)를 얻어서 ~하는 것을 허락 받는다> 고 이해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X의 행위(위의 예라면 「カメラを使う」)를 논술하는 데에 Y에 대해서 소위 이중으로 敬意를 나타내는 취지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특히 X를 말하는 사람 자신, Y를 듣는 사람으로서 논술하는 경우에 꽤 敬意의 程度

가 높은 표현이 되고 …(中略)… 이것 전체로서 말하는 사람 자신의 행위를 상대방에 대해 낮추어서 논술하는 일종의 複合的인 謙讓語로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¹⁴⁾고 기술하고 있다.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은 「私は三宅先生にその本を読ませていただきました」와 같이 본래 실제로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 무언가를 시켜 받는다고 하는 듯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어울린다. 또 실제로 상대방의 허락이나 은혜 등과는 관계없이 행하는 행위였더라도 「(結婚式に)出席させていただきます, 明日は休業させていただきます」와 같이 상대방의 허락이나 은혜 등을 얻은 다음에 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대방의 결혼식의 출석 허락으로 취한 표현,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서 휴업을 하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菊地(1994)는 「허락을 청하고 있는 듯하기에 「～いたします」보다 敬意의 정도가 높은 인상을 부여한다고 하는 감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¹⁵⁾

다만 이와 같은 사용 방법도 개인차의 문제로서 상대방의 허락이나 은혜를 얻어서 어떠한 행동을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행위에 관해서 「させていただくな」를 사용하는 것은 過剰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83) 私は今の職場に十五年勤め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위 문장은 회사의 상사나 취직을 시켜준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상사나 취직을 시켜준 사람이 아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자신의 회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되어버려 誤用이 되는 것이다.

14) 菊地康人『敬語』角川書店 1994 p.181

15) 菊地康人『敬語』角川書店 1994 p.182

또한 최근에는 아래 문장에서처럼 듣는 사람의 許可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84) わが社は今回、品を開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菊地(1994)는 이와 같은 誤用에 대해서 「許可를 얻는 뜻의 표현을 분별 없이 간단히 자신의 행위를 논술하는데 있어서 「させていただく」를 사용하여 「～いたします」보다 敬意의 程度가 더 높은 謙讓語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 문장과 같이 상대방의 許可나 恩惠를 받을 수도 없고, 상대방과는 무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させていただく」의 표현이 최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현재는 오용이지만 이는 점차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話者의 행위를 낮추어서 말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Xは(が) Yに～を～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範囲가 拡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Y의 許可(恩惠)를 얻어서 하는 것을 허락해 받는다고 하는 문맥에서 → 실제로는 Y의 許可(恩惠)를 얻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취할 수 있는 문맥으로 → Y의 許可(恩惠)를 얻어서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문맥으로까지 拡張되고 있는 것이다.

4.2 させていただく의 多層的 分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Xは(が) Yに～を～させていただく」 구문은 실제로 Y의 許可(恩惠)를 얻어서 하는 것을 허락해 받는다고 하는 문맥에서 → 실제로는 Y의 訸可(恩惠)를 얻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취할 수 있는 문맥

으로 → Y의 許可(恩恵)를 얻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문맥으로까지 拡張 사용되고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拡張 사용되고 있는지 「させていただく」 구문의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여 그에 따른 「させていただく」의 타입을 분류한 뒤, 신문기사를 조사 분석하여させていただく의 사용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4.2.1 「～させていただく」의 構造 및 下位分類¹⁶⁾

① 「させる(상대방에게 許可를 구함)」 + 「～ていただき(恩恵間接尊重¹⁷⁾)」
+ 활용어미」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させていただく」를 사용할 경우에, ①의 허가 요구의 의미와 ②의 「恩恵」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①에 있어서 「許可를 해준다고 想定할 수 있는 인물」을 「行動의 許可者」라고 명하고, 표현형식전체의 「行動」의 「결정권」을 가진 인물과 분리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行動의 許可者」(「許可者」)는 「…に～させていただく」의 「…」부분에 해당하는 인물로 想定할 수 있다.

예) 先生、すみませんが、先生のビデオカメラを使わ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

에서는, 표현형식 「～せただけませんか」、 표현 의도는 「許可를 구함」이 되지만,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게 하는 「行動의 許可者」는 「使わせる」許可를 내리는 인물인 「先生」, 「行動의 결정권」도 「いただけませんか」라는 질문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 「先生」이 된다.

16) 宇都宮陽子「「待遇表現」として「～(さ)せていただく」に関する一考察」『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研究vol.6』2005 pp.30-32

17) 浦谷宏/川口義一/坂本恵『敬語表現』大修館書店 1998
에서는 恩恵間接尊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ある動作に間接的に関わる人物を<高くする>という「敬語的性質」と「恩恵」を併せ持つ表現。」

예) 先生のビデオカメラを使わせていただきます。

에서는, 「표현형식」은 「～させていただきます」, 「표현의도」는 「宣言(강한 意思 表現)」, 「行動의 許可者」는 「先生」이지만, 「行動의 결정권」은 「宣言을 하는 「자신(話者)」인 것이다.

위의 「～させていただく」의 구조분석을 토대로, 「させていただく」 본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行動의 주체인 자신」이 「行動에 관계하는 인물」 (= 「行動의 許可者」 또는 「許可者」)에게, 그 行動을 행하는 「許可」를 얻음(또는 얻었음)
- ② ①의 「恩惠」를 느끼고, 「行動의 許可者」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

「～させていただく」는, 활용어미(文末의 모달리티)의 형태에 따라 「표현의도」가 「宣言 (강한 의사표현)」이나 「許可를 구함」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위의 ①의 「許可를 얻음」의 의미에 주목하여 「～させていただく」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1) I 타입 「本来의 의미」의 용법

【(정말로) 「어떤 行動을 행하는 許可를 얻음」의 의미 + 「恩惠間接尊重」의 의미가 있는 경우】

「行動의 許可者」가 정말로 「許可」를 한 경우, 「…に～させていただく」의 「…」 부분에 구체적인 인물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

예) 先生にビデオカメラを使わせていただいた。

授業を早退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양 쪽 모두 「行動의 許可者」 = 「先生」

(2) II 타입 「許容範囲」의 용법

【「아마도 許可를 얻음」의 의미 + 「恩惠間接尊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경우】

「行動의 許可者」가 「許可」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に～させていただだく」의 「…」의 부분에 구체적인 인물을 想定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 (新聞記事で) 敬称は、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す。

「行動의 許可者」 = 読者

先日はお邪魔させ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行動의 許可者」 = 상대방

(3) III 타입 「検討를 필요로 하는」 용법

【「아마도 許可를 얻음」의 의미 + 「恩惠」의 의미가 없는 경우 (間接尊重의 의미는 있음)】

「行動의 許可者」를 特定화할 수가 없고, 「…に～させていただだく」의 「…」의 부분에 구체적인 인물을 넣어서 표현할 수 없다.

예) 弊社は新製品を(?)に開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夏休みは(?)に沖縄に旅行させていただきます。

以上의 분류는, 「「許可」를 얻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으나, 판정은 다른 성질을 가미하여, 종합적으로 하기로 한다. 이 분류방법은, 「…に～させていただにく」의 「…」 부분에 「行動의 許可者」를 想定해 보는 것을 기준으로 「～させていただにく」를 I, II, III 의 3분류 한 것으로, 「～させていただにく」 구문의 용법의 판단을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4.2.2 新聞記事에 나타난 「させていただにく」의 用法

上位의 분류의 방법을 통해 실제로 新聞記事에 나타나는 예문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I 타입에 속하는 실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ご要約いただいた旅行を中止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K)¹⁸⁾
- ・明日またやすませ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K)
- ・向田邦子さんの台本のノベライズ一つまり小説の仕事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た。(K)
- ・本日以降、週一回の頻度で採血をさせていただく。(K)
- ・球史に残る名遊撃手の木塚さんとコンビを組ませていただいたのが、(K)

II 타입에 속하는 실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当選者の発表は発送を持ってか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K)
- ・日本紡績協会会長を二度努めさせていただき、多少なりとも業界のお役に…
(K)

18) K는 日本經濟新聞, S는 日經產業新聞, Y는 日經金融新聞, P는 日經プラスワン을 나타낸다.

- ・日産の開発計画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が、(K)
- ・熊谷組との経営統合の道筋が立つまでは続投させていただきたい。(S)
- ・政府機関であるものの、インセンティブを与える報酬制度は使わせていただ
く… (Y)
- ・お払い戻しの書類を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K)
- ・今後も調停の場で誠意持って協力させていただきます。(K)
- ・多くの人からの支援金を治療に使わせていただきました。(K)
- ・現段階での氏名公表は差し支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K)
- ・そこだけ繰り返していわせていただくが、私は、金融政策は…(Y)
- ・面白く読めるものならどう書いても良い、というので書かせていただくことにした。(K)
- ・ベイスターズももう一度やらせていただこうと思う。(K)
- ・お客様には個別にお詫びさせていただきます。(K)
- ・帰ってきた時に一緒に温泉に来てほしいという思いで送らせていただいた。
(K)
- ・話をする段階ではありませんので、コメントを差し支えさせていただきま
す。(K)
- ・受賞をきっかけに近所の方と親しく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良かったと…
(K)
- ・親書は興味深く読ませていただきました。(K)
- ・一生懸命に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K)
- ・この度の受賞は業界を代表して拝受させていただいたと考えております。(S)
- ・微力ながら業界の発展に携わらせていただいた結果が、受賞に結び付いた。
(S)
- ・彼女の文章から引用させていただく。(P)
- ・コメントを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K)
- ・意見交換させていただくのが（会談の）本来の目標だった。(Y)

- ・しっかりと対応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手紙を出す。(K)
- ・いろいろな計算結果はあるが、具体的なケースについては差し支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Y)
- ・様々な角度から幅広い意見を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K)
- ・中野さんには友愛精神を学ばせていただいた。(K)

마지막으로 III타입에 속하는 실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現場には通算して三十年勤務させていただき、それぞれの現場で地域の皆様に…(S)
- ・安全な運転に支障がないことを国として確認させていただいた。(K)
- ・ここはお許しをいただいて書かせていただくことにする。(K)
- ・工夫の一つとして提案させていただいた。(Y)
- ・定年させていただいた後も、この番組の司会だけは続けさせていただいた。(K)
- ・感性を新しくしながら仕事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Y)
- ・2月3日付日経ウィークリー紙上で紹介させていただいた。(P)
- ・私の立場から今コメントするのはこれくらい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Y)
- ・一年四ヶ月の長きにわたり、治療させていただいたので、今場所休むとう…(K)
- ・二十二回の優勝をさせていただき満足しています。(K)
- ・来年はもうすこし甘えさせていただくかもしれない。(K)
- ・その頂点をなす北京・南宗について、思いつくままに述べさせていただく。(K)
- ・公務員人生で非常にいい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た。(K)
- ・地域に根差す金融機関を目指すため、継承させていただきたい。(Y)
- ・しかるべき時期に明らかにさせていただく。(K)

- ・国際福祉都市の実現へ気持ちのいい汗をかかせていただきたい。(K)
- ・次回が楽しみにも思えたので、取り上げさせていただく。(K)

4.2.3 新聞記事 속의 「させていただく」의 實例分析

위의 설례조사를 통하여 얻은 「させていただく」의 실례를記事의 종류, 行動의 許可者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¹⁹⁾

(1) 記事의 종류에 따른 분석

① 「させていただく」는 談話에 集中되어 있다.

설례조사에 의해, 新聞記事에 나타나는 「させていただく」는 인터뷰나 기자발표 등의 談話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させていただく」의 「本来의 의미」가 「使役」, 「恩惠間接尊重」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談話 중에는, 新聞記事에 채택되어 질만한 격식을 차리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대방에 대한 강한 배려가 표현되기 쉽기 때문에 「させていただく」가 담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예) I 타입 「ご要約いただいた旅行を中止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II 타입 「この度の受賞は、業界を代表して拝受させていただいたと考えております」

III 타입 「国際福祉都市の実現への気持ちのいい汗をかかせていただきた

19) 宇都宮陽子「「待遇表現」として「～(さ)せていただき」に関する一考察」『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研究vol.6』2005 pp.37-38

い」

② 수필의 「させていただく」는 Ⅱ타입, Ⅲ타입이 중심을 이룬다.

수필에 나타나는 「させていただく」는 I 타입의 사용이 1例뿐이고, Ⅱ타입 Ⅲ타입에서 몇 차례 발견되었다. 그것은 「書く」「述べる」등의 서술 속에서 행해지는 단순한 자신의 행위의宣言이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문의 성격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서술의 방식이기 때문에 本来의 의미의 I 타입이 아닌,宣言表現의 Ⅱ,Ⅲ 타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예) Ⅱ타입 「(高速道路の料金問題について)ひとつ思い切り非常識な提案をさせていただこう」

③ 「一般記事」에는 「させていただく」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一般記事에서 「させていただく」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一般記事는 사실의 묘사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簡素한 문으로 구성되어지고, 독자에의 배려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는 「させていただく」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行動의 許可者」에 따른 분석

① I 타입의 용례는 적고, Ⅱ,Ⅲ타입의 용례는 많다.

「許可者」가 정말로 許可를 하는 경우(「本来의 의미」의 용법) I 타입은 그 예가 드물고, 「許可者」를 想定할 수 있는 경우(「許容範囲」의 용법)의 Ⅱ타입, 「許可者」를 特定할 수 없는 경우(「検討를 필요로 하는」용법)의 Ⅲ

타입이 压倒的으로 많다. 이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させていただだく」는 「本來의 의미」가 줄어들고, 「許容範囲」로 移行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예) I 타입 「明日、また休ませ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II 타입 「日本紡績協会会长を二度務めさせていただき…」

III 타입 「(拉致問題解決に) 全力を挙げて当たらせていただきたい」

② II 타입의 「許可者」는 상대방이거나 第3者이다.

II 타입에서는 「許可者」가 상대방인 경우에는 강한 의사를 나타내는 「宣言表現」이 많고, 「許可者」가 第3者라고 想定할 수 있는 경우는 「理解要請表現²⁰⁾」이 많다. 「許可者」가 第3者인 「行動展開表現²¹⁾」은 「本來의 의미」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예문을 관찰하여 보면, 그 「許可者」는 신문기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관이나 납치피해자 가족모임 등의 公式的인場面의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예) 「許可者」가 상대방의 경우

「お払い戻しの書類を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

「許可者」가 제3자인 경우

「多くの人からの支援金を治療に使わせていただきました」

20) 浦谷宏/川口義一/坂本恵『敬語表現』大修館書店 1998

에서는 理解要請表現을 「自己の感情・認識、知識・情報などに基づく「表現内容」が「相手」に理解されることを「表現意図」とする「文話」。」라고 하였다.

21) 浦谷宏/川口義一/坂本恵『敬語表現』大修館書店 1998

에서는 行動展開表現을 「自己の感情・認識、知識・情報などに基づく「表現内容」が「相手」に理解されるだけでなく、それによって「相手」あるいは「自分」(またはその「両者」)が何らかの行動を起こし、その「行動」で「表現内容」が実現されることを「表現意図」する「文話」。」라고 하였다.

③ Ⅲ타입의 「許可者」는 特定지를 수 없다.

Ⅲ타입의 실례 중 「行動展開表現」은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었다. 그것은 「させていただく」「させていただきたい」 등의 「宣言表現」의 표현형식으로 「許可者」는 확실하지 않는 不特定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높여 말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기 위해 쓰여진 「間接 丁寧語」로서의 용법으로, 이는 檢討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恩惠」라는 점에서는 實例의 절반정도가 「恩惠」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恩惠」는 I 타입에서 II, III 타입을 통틀어 「させていただく」 표현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新聞記事에 나타난 「させていただく」 표현을 조사·분석한 결과 「させていただぐ」의 「許容範囲」의 용법인 Ⅱ타입과 「檢討를 필요로 하는」 용법의 Ⅲ타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았다. 新聞記事에 나타난 「させていただ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시점에서 「させていただぐ」는 「本来의 의미」가 줄어들고, 「許容範囲」「檢討를 필요로 하는」 용법으로 그 사용의 중심이 移行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이 「させていただぐ」의 使用範囲가 变해가는 原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4.3 「させていただぐ」의 使用範囲의 拡張 要因

그러면 왜 「させていただぐ」가 拡張 使用되는 것일까. 그 要因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謙讓語 A²²⁾의 「お(ご) ~する/ 申し上げる」라는 형태를 취할

22) 菊地(1994)는 大石(1976)의 겸양어A(소재경어의 하위분류) 겸양어B(청자경어의 하위분류에 따라 겸양어를 분류하였다.

겸양어A…보어(2,3인칭)등을 높이고 주어(전형적으로 1인칭)를 보어보다도 낮게 파악한다.

수 없는 동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원칙적으로 이 형태는 「～を(に,から,と,のために,について)」와 같은 인물이 補語로서 想定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²³⁾ 그러나 「～のために」에 해당하는 인물을 想定할 수 있어도 다음과 같이는 말하지 않는다.

- ・この方のためなら火の中へでもお飛び込みします。
- ・(誰かのために、誰かにかわって) 新幹線にお乗りする (ご乗車する)。
- ・先生にかわって苦情をお訴えします。

菊地는 「お(ご) ~する」 「申し上げる」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어느 정도 법칙을 세울 수 있지만 이는 習慣에 의한 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그렇다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話者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형태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기존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 意味的, 機能的으로 類似한 것으로 전환시켜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この方のためなら、火の中へでもお飛込ませていただきます。
- ・(誰かのために、誰かにかわって) 新幹線にお乗らせていただきます (ご乗車させていただきます)。
- ・先生にかわって苦情をお訴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お (ご) ~ する, お(ご)~申し上げる, 申しあげる, 存じ上げる, 差し上げる, いただく, うかがう

겸양어B…주어(1인칭)을 낮추고 듣는 사람에의 정중함을 나타낸다.

~いたす, いたず, 申す, 参る, 存じる

겸양어AB…보어(2,3)인칭을 높이고 주어(1인칭)를 낮추고 듣는 사람에의 정중함을 나타낸다.

お(ご) ~いたす

23) 菊地康人 『敬語』 角川書店 1994 p.235

24) 菊地康人 『敬語』 角川書店 1994 p.238

이와 같이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이 本来의 의미에서 벗어나 拡張 使用되는 것은 「お(ご) ~する」 「申し上げる」의 대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이 「お(ご) ~する」 「申し上げる」의 대신으로 사용되는 것은 心理的 要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敬語 使用의 要因 중의 하나가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자신에게 恩惠가 부여된다고 하는 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させていただく」가 다른 謙讓語보다 사용되기 쉽다고 말할 수 있겠다. 謙讓語 A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그 대신으로서 의미 기능이 가장 유사한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의 本来의 의미 기능을 拡張시킨다면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점이 「させていただく」가 拡張 사용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披露宴をいたす」 「剣道を続けておる」와 같이 「させていただく」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에까지 그 사용範囲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範囲의 拡張의 방향이 경어 전반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拡張의 要因에 間接的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 의해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 平安 시대 이후 대화의 敬語가 계속 발전하고 현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의 敬語는 대화의 敬語를 향해서 변화하고 있다.

「Xは(が) Yに～を～(さ) 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은 특히 X를 화자, Y를 청자로 한 경우 상당히 敬意의 程度가 높은 표현이 된다. 실제로는 許可나

恩惠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닌 행위를 허가나 恩惠를 얻어서 하는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許可나 恩惠와는 관계가 없는 문맥에서도 상대방을 의식하여 자신을 낮추는 기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要因도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範囲의 拡張의 要因으로 볼 수 있겠다.

菊地(1989·1994)에 의하면 謙讓語 B는 話題의 敬語이고 話者나 그 쪽 사람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典型的인 용법이다. 하지만 典型的인 용법을 벗어나 무생물이나 第3者를 주어로서 「電車が通過いたします」 「この大会は二百人の選手が参加いたします」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도 謙讓語 B는 주어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菊地는 이와 같은 용법을 謙讓語 B의 鄭重用法이라고 하여, 대부분 対話의 敬語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させていただく」의 표현도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 의해 話者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또 상대방의 許可나 恩惠를 얻고 나서 話者が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典型的인 용법을 떠나서 오로지 상대방을 의식하여 자신을 낮추거나 정중한 기분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させていただく」가 拡張 使用되는 것은 「させていただく」의 표현이 잘못된 유추를 일으키기 쉽다는 점이다. 菊地의 지적에도 있듯이 「させていただきます」는 상대방의 許可를 청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いたします」보다도 敬意의 程度가 더 높다고 하는 유추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유추에 의해서 「させていただきます」는 실제로 許可나 恩惠를 받는다고 하는 문맥에서 실제로는 許可나 恩惠를 얻을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맥으로, 그리고 許可나 恩惠 등과는 관계가 없는 문맥으로의 使用範囲가 拡張된 것이다.

25) 菊地康人 『敬語』 角川書店 1994 pp.221-226

처음에는 착각하여 잘못 사용되던 것이 점차로 널리 사용되어짐에 따라 그와 같은 감각이 희미해져서 자신의 행위를 낮추어 말하는 謙讓語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은혜가 부여 된다>고 하는 취급의 표현방법이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표현이 된다는 心理学的 要素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敬語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동안에 敬意가 점차적으로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사용되어져 오는 「いたします」도 「させていただきます」에 비하여 敬意가 낮다고 하는 의식이 日本人母語話者에게 잠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範囲의 拡張의 要因을 분석해보았다. 다음으로는 「させていただく」의 사용에 있어서 誤用表現으로 일컬어지는 「サ入れ言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4.4 「させていただく」의 誤用表現 「サ入れ言葉」

(85) ゲストが注文した料理を作ら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フジテレビ「SMAP×SMAP」)

(86) 私、香港映画をや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日本テレビ「ぐるないん」)

(87) 今日はとびっきりおいしいところを作らさせていただきます。(フジテレビ「究極の逸品・東西対決」)

최근 「させていただく」의 過剩使用과 함께 오단동사에 「「さ」せていただく」가 연결되어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소위 「サ入れ言葉」의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サ入れ言葉」는 TV나 영화 등

에서도 빈번히 접할 수 있다.

菊地(1996)는,

「なおまた、五段活用の動詞のときは本来「せていただく」ですが「読ませていただく」式の誤用も見られます。本意も忘れ、活用のタイプも無視して、まさに一つ覚えて「～させていただく」と使っているでしょう。

라고 하여 「～させていただく」의 오용을 지적했다.²⁶⁾

원칙적으로 오단동사 (「読む」「置く」「歩き」등)에는 「せる」를, 그 이외의 동사 (「受ける」「着る」「建てる」등)에는 「させる」를 붙여야 하지만 「せる」를 붙여야하는 오단동사에 「させる」를 붙여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サ」가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井上(2003)²⁷⁾는 「サ入れ言葉 / サ付き言葉라고 불리는 것은、1980년대말에서 1990年代에 걸쳐 간행된『方言文法全国地図』에서는 「書かせる」에 대하여 「カカサセル」라는 형식이 시즈오카시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 「サ入れ言葉」는 두 종류의 사역의 형식 (「せる」「させる」)을 「させる」로 통일하여 단순화한 것이다. 이것은 소위 「ラ抜き言葉」가 두 종류의 수동의 형식(「れる」「られる」)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은 현상으로, 같은 기능을 갖는 형식을 동사의 활용에 의해 나누어 쓰는 불편함을 덜려고 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어쨌든 이러한 「サ入れ言葉」는 문법상에 있어 확실한 오용표현이므로 그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²⁸⁾

26) 菊地康人『敬語再入門』1996 p.146

27) 井上史雄 『日本語は年速一キロで動く』講談社 2003

第 5 章 結論

「させてもらう」는 使役의 助動詞 「させる」에 受益表現 「もらう」가 연결된 구문으로 複合構造 형식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話者가 상대방의 許可를 얻어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恩惠的으로 나타내거나, 謙讓表現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させてもらう」는 알맞은 한국어 문법형식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일반적인 의미만을 다루고 있어 많은 일본어 학습자들을 혼란시키는 문법형식이다. 「させてもらう」는 構造的으로 使役+もらう의 複合構造로 이루어져 있지만, 使役의 助動詞 「させる」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使役主가 존재하는 「させてもらう」와, 使役의 助動詞 させる의 특징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즉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한 경우의 「させてもらう」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使役主가 존재하는 「させてもらう」를 「使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이라 칭하고, 使役主가 존재하지 않거나 不特定한 경우의 「させてもらう」를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라 칭하여 그에 따른 의미와 용법을 중심으로 「させてもらう」를 분석하여 보았다.

2章에서는 먼저 「使役主 明示의させてもらう」는 使役의 의미에 따라 直接的 행위의 使役의 させる+もらう와 許可의 使役 させる+もらう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예문을 들어 용법의 이해를 도왔다. 「不特定 使役主의させてもらう」는 먼저 相對에 대한 行為, 意向伝達, 待遇表現, 기타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하위유형을 세분하여 그 不特定 使役主의 「させてもらう」의 의미·용법을 확실히 하였다. 相對에 대한 行為의 하위유형으로 要求, 命令에 가까운 依頼, 劍誘의 용법이 있었고, 意向伝達의 하위유형으로 완곡한 意思表

28) 「サ入れ言葉」와 함께 「やらしていただきたい」에서와 같이 「やらせて」가 아닌 「やらして」도 빈번히 사용되는데 이 표현도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므로 쓰임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現, 강한 意思表現, 決定事項의一方的인 通報, 許可를 가장한 決定事項의 伝達, 상대방의 意思나 行動에 대한 반발의 발언, 상대방에 대한 恩惠 授与가 있었다. 또한 待遇表現, 기타의 하위유형으로 序文, 빙정거림 또는 비난, 감사 등으로 세분하여 그에 따른 實例를 들어 「させてもらう」의 의미·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3章에서는 「させてもらう」와 複合的 態와의 相關關係를 분석하여 「させてもらう」의 의미, 용법을 더욱 명확히 고찰하였다. 「させてくれる」와 「させてもらう」는 보이스적인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置換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させてもらう」와 「させられる」는一般的으로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규정할 수 없다. 흔히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갖는 「させられる」도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 플러스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させてもらう」와 置換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てもらう」와의 비교에 있어서 動作主의 意志의인 介入이 있을 경우 「させてもらう」와 「させられる」는 置換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4章에서는 「させてもらう」의 待遇表現 「させていただく」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させていただく」가 本来의 의미의 용법(I 타입)에서 檢討를 필요로 하는 용법(III 용법)으로 拡張 使用되는 것을 新聞記事의 實例를 통하여 분석하여 그 拡張 使用되는 要因을 밝히고, 「させていただく」에서 誤用表現으로 지적되고 있는 「サ入れ言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以上과 같이 「させてもらう」의 의미·용법과 「させていただく」의 使用実態에 관해 연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させてもらう」를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지도방안 등에 대해서는 次期의 연구課題로 삼고자 한다.

<参考文献>

<単行本>

- 庵功雄(2001)『新しい日本語学入門』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庵功雄/高梨信乃/中西久実子/山田敏弘共著(2001)『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井上史雄(2003)『日本語は年速一キロで動く』講談社新書
- 浦谷宏/川口義一/坂本恵(1998)『敬語表現』大修館書店
- 大石初太郎(1976)「敬語が正しく使えますか」『言語生活』295 筑摩書房
- 菊地康人(1994)『敬語』角川書店
- _____ (1996)『敬語再入門』丸善ライブラリー
- _____ (1997)「変わり行く「～させていただく」」『言語』大修館書店
- 国立国語研究所(1986)『社会変化と敬語行動の標準』
- 佐藤里美(1986)「使役構造の文」『ことばの科学1』むぎ書房
- 辻村敏樹(1968)『敬語の史的研究』東京堂出版
- 文化庁(2007)『敬語の指針』
- 南不二男(1987)『敬語』岩波書店
- 山田敏弘(2006)『日本語ベネファクティブー「てやる」「てくれる」「もらう」の文法』明治書院

<学位 및 学術誌掲載論文>

- 김종택·이용현(2002)「日本語授受動詞의 특질」公州映像情報大學 論文集 第IX輯
- 宋惠仙(2006)「使役受益態「させてもらった」構文の一考察」『日本学報』第66輯
- 李光秀(2005)「日本語「させてもらう」構文에 대하여」『日語日文学研究』 第55輯
- 李夏子(1999)「謙讓表現「お(ご)--する」와 「-させていただく」研究」『語学研究』第10輯

丁意祥(2006)「「させてもらう」文の意味・用法について」『日語日文学研究』第59輯

李炳万(1998)「近・現代 日本語 敬語表現의 問題 「～させていただく」에 관한 考察」『日本語文学』第6輯

井口裕子(1997)「結婚披露宴における「～させていただく」」『国学院雑誌』 第九十六卷 第十一号

宇都宮陽子(2005)「「待遇表現」として「～(さ)せていただく」に関する一考察『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研究』vol.6

嶺田明美(1997)「謙讓表現の一形式「(サ)セティタダク」」の使用の実態について」淑徳短期大学研究紀要36号

正宗美根子(2003)「日本語の語用論的構造について」北陸大学紀要第27号

山本裕子(2002)「「～テモラウ」の機能について」名古屋女子大学紀要48(人・社)

由井紀久子(1990)「受給動詞の運用-オマエニクレテヤル・(さ)せてモラウについて」『日本学報』9. 大阪大学文学部日本学科

<用例出典>

竹山道雄『ビルマの豎琴』 / 清岡卓行『アカシアの大連』 / 佐藤繁子『白い手』 / 庄野潤三『プールサイド小景』 / 黒柳徹子『窓際のトットちゃん』 / 五木寛之『風に吹かれて』 / 水谷幸喜と東京サンシャインボーイズ『12人の優しい日本人』 (シナリオ) / 阿部公房『飛ぶ男』 / 沢木耕太郎『一瞬の夏』 / 菊村到『硫黄島』 / 林美美子『放浪記』 / 新田次郎『孤高の人』 / 太宰治『人間失格』 / 赤川次郎『女社長に乾杯!』 / 星新一『人民は弱し、官吏は強し』 / 立原正秋『冬の旅』 / 東野圭五『手紙』 / 川端康成『雪国』 / 吉行淳之介『砂の女の植物群』 / 水上勉『雁の寺』 / 市川拓司『いま、会いにゆきます』 / 村上春樹『村上ラヂオ』 / 山田詠美『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 片山恭一『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 星新一『ボッコちゃん』 / 萩野アンナ『背負い水』 / 森鷗外『ヰタ・セクスアリス』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58045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소 라	한문: 李 小 羅	영문: Lee So-ra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송촌파인힐 102-1003				
연락처	H.P : 010-5437-2066	E-MAIL :moritaotto@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日本語「させてもらう」에 關한 一考察 영문 : A Study of 「SASETEMORAU」 in Japanes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1 월 일

저작자 : 이 소 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